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평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55,10-11

화답송 | 시편 65(64),10-11.12-13.14(◎ 루카 8,8)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가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쁨의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8,18-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3,1-23

영성체송 |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가 | 입당 329 예물준비 211(210)
영성체 165(164) 파견 29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강순기 이레네 영혼을 위하여
- 김재윤 요셉
- 김옥지 아가다
-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영혼을 위하여
- 선민 마리아 Lee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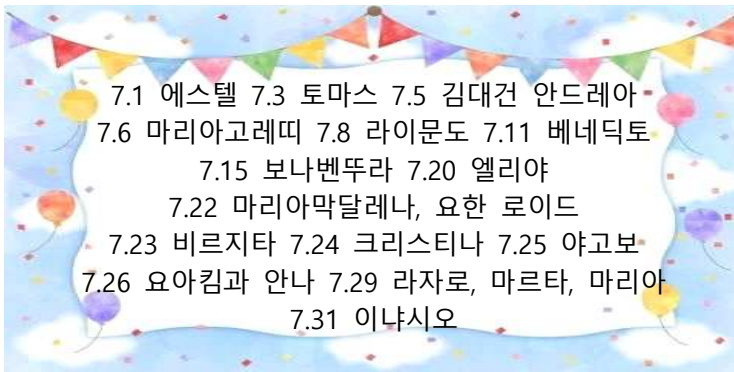
생미사 지향

- 유기호 베네딕도
- 연령회 회원들의 영육 건강
- 박승민 토마스아퀴나스
- 김민아 안젤라, 임성빈 레오
- 금지원 카타리나
- 김자형 카타리나
- 김상길 베드로, 김춘화 카타리나
-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 유선옥 베로니카 영명축일
- 민덕미 안젤라 무릎 완치를 위하여
- 김승환 베네딕도
- 민덕미(안젤라)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이경자(율리아나) 영육 건강을 위하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7월 12일	김진섭	이태주	장민우	이태주 장민우	김종선 진서윤	최예준 정루하
7월 19일	장혜윤	강호영	이경자	강호영 이경자	김종선 이영혜	김수현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7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 7/13-7/17 본당 일정 안내

본당신부님들의 작은형제회 미국 관구 회의 참석으로 본당 미사와 고해성사 일정에 일시적 변동이 있습니다.

- 평일미사: 아래성당, 12:00(낮미사), 5시 30분(저녁미사)
(아침 7시 30분 미사, 아침 8-9시 고해성사 없음)

- 7/13-7/17 윗성당 폐쇄(아래성당만 개방)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마태 13,19)

2026 연례회 피정

일시: 7월 12일(오늘) 오전 11시-12시

장소: 아래성당

주제: 가톨릭 영성으로 바라 본 노년기
(부제: 연례회원의 사명과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

대상: 연례회원

문의: 646-369-3666(연례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2027년 달력 광고 신청

2027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달력을 제작합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6월 14일(주일) - 7월 26일(주일)까지

광고게재비: \$200 신청: 재무 데스크

*광고가 확정된 분들은 달력에 게재할 광고 시안을 seoulsb@gmail.com(Sr. 마리루시)로 보내 주십시오.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희망자 모집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8월 30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월 13일- 2027년 3월 29일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양식신청 및 제출 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미국 본당과 동일하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제30차 2026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 17, 21)

일시: 7월 25일(토) 오전 9:00-오후 8:30,

7월 26일(주일) 오후 12:00-오후 6:00

장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강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예수회 호주 관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신용문 야고보 신부

참가비: \$40 (토요일 점심 저녁, 주일 점심 포함)

신청: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주최: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지도신부: 조민현 요셉)

(선종) 故 노혜영 리오바(향년 93세)

7월 10일(금) 오전 10시 15분 선종

“주님, 노혜영 리오바 자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노혜영 리오바 자매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
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1769-1802)



권상문(權相問) 세바스티아노는 한국 천주교회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반 집안 출신이다. 교회 설립 주역인 권철신 암브로시오가 그의 큰아버지였고,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그의 아버지였다.

1769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히 신자가 되었으며, 이웃에 사는 윤유일 바오로 등

교우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교리를 연구하였다.

1791년의 신해박해로 아버지가 순교하자 한때 교회를 멀리 하였으나,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한 뒤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다. 1795년의 을묘박해로 주 야고보 신부가 피신 생활을 하게 되자, 그는 3일 동안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유숙시키면서 교리를 배웠다.

1800년 양근에서 체포된 그는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증언하였다. 잠시 마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지만 곧 잘못을 뉘우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결국 형조에서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고,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 양근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창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90, 가해, 2026. 07. 12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옥토

WONJ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WEST
린다김 데려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m@gmail.com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땅끝에 이르기까지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사도행전은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테오필로스는 루카 1,3에 언급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일 것이고, “첫 번째 책”은 루카 복음입니다. 정말로 같은 저자가 두 권을 써서 테오필로스라는 실존 인물에게 헌정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구절은 사도행전을 루카 복음에 이어지는 책으로 소개합니다. 루카 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장면도 승천입니다. 그래서 대략 말하자면 루카 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의 이야기가 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줄거리가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1,4)라고 하십니다. 루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요한의 탄생 예고) 예루살렘에서 끝났습니다(승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이야기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이 그 시기에 대해서 전해줄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오시고 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1,8)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스테파노가 순교한 후에는 박해로 인하여 신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고(8장), 이를 계기로 사마리아, 유다,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와 같은 여러 곳으로 복음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13장 이후로는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특히 그의 선교 여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땅끝에 이르기까지”(1,8)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이지요. 세 차례에 걸친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이 소개되고, 마지막에는 바오로가 수인으로 로마로 압송되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로마에 도착한 바오로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28,31)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잡혀와 있고 이제 머지않아 순교하게 될 것이지만, 복음이 로마에까지 도달함으로써 사도행전은 완성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업적을 기리는 책이기 이전에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고 교회가 시작된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1,11).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말씀이 땅끝까지 도달하도록 이제는 사도들이 움직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이어갑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7, 2026. 06월 21일



그림 묵상

수확 | 씨앗과 열매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꽃잎은 흔들리며 피어났고, 쓰러지고 일어서며 열매는 익어갑니다. 말씀과 사랑도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진대, 알알이 맺힐 기쁨을 꿈꾸며, 당신으로 인해 알게 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21호, 2026년 7월 12일(가혜)

